

선지서 해석

저자: 리차드 프랫 2 세 (Th.D., Harvard)

역자: 이창배 (Ph.D., UCLA)

번역 후원: Ankur Lee-Vakil (Son-in-law)

제 4 강

언약들의 역학적 원리



THIRD MILLENNIUM
MINISTRIES

Biblical Education. For the World. For Free.

© 2012 by Third Millennium Ministries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for profit, except in brief quotations for the purposes of review, comment, or scholarship,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Third Millennium Ministries, Inc., 316 Live Oaks Blvd., Casselberry, Florida 32707.

Unless otherwise indicated all Scripture quotations are from the HOLY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 Copyright © 1973, 1978, 1984, 2011 International Bible Society. Used by Permission of Zondervan Bible Publishers.

ABOUT THIRD MILLENNIUM MINISTRIES

Founded in 1997, Third Millennium Ministries is a non-profit Evangelical Christian ministry dedicated to providing:

Biblical Education. For the World. For Free.

Our goal is to offer free Christian education to hundreds of thousands of pastors and Christian leaders around the world who lack sufficient training for ministry. We are meeting this goal by producing and globally distributing an unparalleled multimedia seminary curriculum in English, Arabic, Mandarin, Russian, and Spanish. Our curriculum is also being translated into more than a dozen other languages through our partner ministries. The curriculum consists of graphic-driven videos, printed instruction, and internet resources. It is designed to be used by schools, groups, and individuals, both online and in learning communities.

Over the years, we have developed a highly cost-effective method of producing award-winning multimedia lessons of the finest content and quality. Our writers and editors are theologically-trained educators, our translators are theologically-astute native speakers of their target languages, and our lessons contain the insights of hundreds of respected seminary professors and pastors from around the world. In addition, our graphic designers, illustrators, and producers adhere to the highest production standards using state-of-the-art equipment and techniques.

In order to accomplish our distribution goals, Third Millennium has forged strategic partnerships with churches, seminaries, Bible schools, missionaries, Christian broadcasters and satellite television providers, and other organizations. These relationships have already resulted in the distribution of countless video lessons to indigenous leaders, pastors, and seminary students. Our websites also serve as avenues of distribution and provide additional materials to supplement our lessons, including materials on how to start your own learning community.

Third Millennium Ministries is recognized by the IRS as a 501(c)(3) corporation. We depend on the generous, tax-deductible contributions of churches, foundations, businesses, and individuals.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ministry, and to learn how you can get involved, please visit www.thirdmill.org

선지서 해석

제 4 강 언약들의 역학적 원리

목차(Contents)

| | |
|---|-----------|
| I. 서론(Introduction) | 1 |
| II. 언약의 이상들(Covenant Ideals) | 1 |
| A. 언약의 구조들(Covenant Structures) | 2 |
| B. 선지자들의 사역(Prophetic Ministry) | 5 |
| III. 언약의 심판(Covenant Judgment) | 6 |
| A. 심판의 유형들(Types of Judgment) | 6 |
| 1. 자연계를 통한 심판(Judgment in Nature) | 6 |
| 2. 전쟁을 통한 심판(Judgment in Warfare) | 7 |
| B. 심판의 과정(Process of Judgment) | 8 |
| 1. 하나님의 인내(Divine Patience) | 8 |
| 2. 증대되는 가혹성(Increasing Severity) | 9 |
| 3. 특별한 절정(Particular Climax) | 9 |
| IV. 언약의 복들(Covenant Blessings) | 10 |
| A. 복들의 유형들(Types of Blessings) | 11 |
| 1. 자연계를 통한 복(Blessing in Nature) | 11 |
| 2. 전쟁을 통한 복(Blessing in Warfare) | 12 |
| B. 복들의 과정(Process of Blessings) | 12 |
| 1. 은혜(Grace) | 13 |
| 2. 정도들(Degrees) | 13 |
| 3. 절정(Climax) | 14 |
| V. 결론(Conclusion) | 15 |

선지서 해석(He Gave Us Prophets)

제 4 강 언약들의 역학적 원리(Dynamics of the Covenants)

I. 서론(INTRODUCTION)

여러분은 인간 관계에 기복(起伏)이 있다는 것에 주목해 본 적이 있는가? 친구 관계가 어떤 때는 즐겁기도 하고 어떤 때는 즐겁지 않다. 그 관계는 때때로 편안하기도 하고 때때로 불편하기도 한다. 이전 강의들을 통해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의 사절들이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 사절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기복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이해해야 한다. Have you ever noticed that human relationships have their ups and downs? Friendships are sometimes enjoyable and other times not enjoyable. Sometimes they're secure and other times insecure. We've seen in previous lessons that the prophets of the Old Testament were emissaries of God's covenant with his people, and to understand this emissarial function, we have to understand that the prophets realiz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Israel and God had its ups and its downs.

이번 강의의 제목은 "언약들의 역학적 원리"이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세 가지 다른 주제들을 살필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언약의 이상(理想)들을 탐구할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언약의 심판 곧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을 때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사역했는지 검토할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언약의 복들 곧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제공하신 복들에 대하여 어떻게 말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언약의 삶의 이러한 역학적 원리를 파악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들을 이해하는 일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선지서들이 오늘의 교회와 세상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해하는 일에도 도움을 준다. 여호와와 맺은 언약 안에서 사는 삶의 기본적인 이상들은 무엇이었는가? We've entitled this lesson the "Dynamics of the Covenants." In this lesson, we are going to look at three different topics: First, we will explore the covenant ideals. And second, we'll examine covenant judgment — how did the prophets minister on God's behalf when the people

fell under divine judgment? And then third, we're looking to covenant blessings — how did prophets speak of blessings that God offered to his people? Grasping these dynamics of covenant life will help us understand Old Testament prophecy and how it applies to the church and the world today. What were the basic ideals of covenant life with Yahweh?

II. 언약의 이상들(COVENANT IDEALS)

여러분은 결혼식에 가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 서로에게 말하는 굉장히 좋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맞이하여,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함께 있는 것.” 신랑과 신부가 그들의 결혼을 이상(理想)적이지 못한 서약으로 시작하는 것을 듣는 것은 좀 이상(異常)하지 않는가? 여러분은 남자가 여자에게 “나는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지만 당신이 병이 들면 함께 있는 것이 정말 어려워질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은 여자가 남자에게 “나는 당신의 나의 남편으로 맞이할 것이지만 당신은 우리가 가난해지게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들의 결혼식에서 서로 서로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 한 쌍의 남녀에게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의아해 하는 것은 우리가 결혼의 시작이 이상적인 것들에 초점을 맞추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새로운 관계이다. 그것은 일들이 되어야만 하는 그대로 있는 때이다. 우리 모두는 그 부부가 관계가 이상적일 때 서로 서로에게 말했던 것들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Have you ever been to a wedding and heard all the wonderful things that the bride and groom say to each other? “To have and to hold, in sickness and in health, for richer or poorer.” Wouldn't it be strange to hear the bride and groom begin their marriages with vows that were less than ideal? Can you imagine hearing the man say to the woman, “I take you to be my wife, but it's really going to be hard to hold on if you get sick”? Or can you imagine the woman saying to the man, “I'll take you as my husband, but you'd better not let us get poor”? Well, we would wonder what was wrong with a couple who spoke like that to each other on their wedding day because we expect the beginning of a

marriage to focus on ideals. It's a fresh relationship. It's a time when things are just like they're supposed to be. We all hope that the couple will remember the things they said to each other when the relationship was ideal.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같은 일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관계에도 적용되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의 이상(理想)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했다. 이 이상적인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 주제를 살펴보아야 한다. 첫 번째 주제는 기본적이고 이상적인 언약의 구조들이다. 두 번째 주제는 선지자들의 사역 곧 선지자들이 어떻게 이러한 구조들에 의지했는가 하는 것이다. Well, the prophets of the Old Testament knew something like this was tru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his people. They understood that there were certain ideals of the covenant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Israel. Now to understand this ideal relationship, we have to look at two subjects: first, the basic ideal covenant structures; and then secondly, the prophetic ministries, or how the prophets relied on these structures.

A. 언약의 구조들(COVENANT STRUCTURES)

이전 강의들에서 우리는 구약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들을 묘사할 때 마치 그것들이 고대 근동의 종주-봉신 조약들을 본떠서 만들어진 것처럼 묘사하는 것을 살펴보았다. 구약 시대에 강대국 황제들이 약소국들과 조약 곧 언약을 맺곤 하였는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그러한 언약 관계를 맺으셨다고 말한다. 황제들이 그들의 봉신국들과 조약을 맺을 때 그들은 먼저 그들의 정치적 협약의 기본 구조를 형성하는 이상(理想)들을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In earlier lessons, we saw that the Old Testament describes Yahweh's covenants with Israel as if they are patterned around the Ancient Near Eastern suzerain-vassal treaties. In the times of the Old Testament, great emperors would enter into treaties or covenants with smaller nations, and the Bible says that Yahweh entered into such a covenant with the nation of Israel. When emperors first entered into

covenant treaties with their vassal nations, they began by declaring certain ideals that formed the basic structures of their political arrangements.

적어도 두 가지 구성 요소들이 항상 종주-봉신 조약들에 나타난다.¹ 첫째로, 고대 근동의 조약들은 황제가 그의 봉신들에게 베풀었던 은택을 항상 주장한다. 그것들은 강대국 왕의 이름을 선언하고 그 왕이 그의 봉신국 백성을 위해 행했던 모든 중요한 일들을 하나 하나 열거하는 역사적 서문으로 시작한다.² 조약들은 항상 황제의 호의에 기초하였고 황제가 베푼 호의라는

¹[역자 주] 시내산 언약을 대표하는 십계명(20:1-17)이나 시내산 언약의 첫 부분인 시내산 언약 문서(출 20:1-23:33)나 [민수기의 보충적 준수 조항을 포함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기록된 전체 시내산 언약(출 20 장-레 27 장)이나 모압 평지에서 시내산 언약을 갱신한 모압 언약(신명기 1-34 장)이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을 권면한 세겜 언약(수 24 장)은 주전 1400-1200 년 사이에 번성했던 종주국 히타이트와 속국들 사이에 맺은 종주권 조약문과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다. 힐과 월튼(*A Survey of Old Testament*, 133)은 근동의 조약문과 구약의 언약들을 다음과 같이 비교하였다.

| 2 천년기 히타이트 조약문서 | 내용 | 출애굽기 레위기 | 신명기 | 여호수아 24 장 |
|-----------------------|-----------------------------|---|----------|-----------|
| 종주 소개 | 조약을 공포하는 권리가 있는 종주국 왕 | 출 20:1 | 1:1-5 | 24:1-2 |
| 역사적 서문 | 종주국과 속국과의 과거 관계 서술 | 출 20:2 | 1:6-3:29 | 214:2-13 |
| 준수조항 | 속국의 의무 열거 | 십계명 출 20:1-17 언약법 출 20:22-23:19 의식법 출 34:10-26, 레 1-25 장 | 4-26 장 | 24:14-25 |
| 문서 규정 | 문서보관과 주기적 낭독에 관한 규정 | 출 25:16(?) | 27:2-3 | 24:26 |
| 증인 | 맹세를 증언할 신들 | 없음 | 31-32 장 | 24:22, 27 |
| 저주와 축복 | 조약 준수 여부에 따른 신(들)의 반응 | 레 26:1-33 | 28 장 | 24:20 |

² [역자 주 2] 시내산 언약(십계명)과 종주-봉신 조약문의 전문과 역사적 서문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이 주제는 성경의 언약의 이상(理想)에도 그대로 나온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베푸신 호의이다. At least two components always appear in suzerain-vassal treaties. In the first place, Ancient Near Eastern treaties always affirmed the benevolence of the emperor toward his vassals. They declared the name of the great king and began with an historical account that enumerated all the great things the king had done for his people. Treaties were always based on the kindness of the emperor, and this theme of kindness from the emperor is true also in the Bible's ideal of covenant. The center of every divine covenant in the Bible was God's kindness toward his people.

언약의 이상(理想)들 가운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또 한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책임이란 요소이다. 고대 세계의 모든 종주-봉신 조약이 황제의 백성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였던 것과 똑같이 구약의 모든 언약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충성을 요구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충성의 반응이 반응 곧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반응이었다는

| | |
|-----|--|
| 조약문 | <i>ANET</i> , 203 (Treaty between Mursilis and Duppi-Tessub of Amurru) Preamble (# 1): "These are the words of the Sun Mursilis, the great king of the Hatti land, the valiant, the favorite of the Storm-god, the son of Suppliuilumas, the great king, the king of the Hatti land, the valiant." |
| 언약문 | 출 20:1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

| | |
|-----|---|
| 조약문 | <i>ANET</i> , 203 Historical Introduction (## 2-7): "Aziras was the grandfather of <u>you</u> , Duppi-Tessub. He rebelled against <u>my</u> father, but submitted to <u>my</u> father. . . . When <u>my</u> father became god and <u>I</u> seated <u>myself</u> on the throne of <u>my</u> father, Aziras behaved toward <u>me</u> just as he had behaved toward <u>my</u> father. . . . When <u>your</u> father died, in accordance with <u>your</u> father's word <u>I</u> did not drop <u>you</u> <u>you</u> were sick ailing, but although <u>you</u> were ailing, <u>I</u> , the Sun, put <u>you</u> in the place of <u>your</u> father and took <u>your</u> brothers (and) sisters and the Amurru land in oath for <u>you</u> ." |
| 언약문 | 출 20:2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백성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지위를 얻은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에 기초해서 그분의 백성과 언약들을 세우셨다. 그러나 예외 없이 언약들의 이상들에는 항상 인간의 책임 곧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라는 요구가 들어 있다.³ There's another

³ [역자 주] 준수조항

| | |
|-----|--|
| 조약문 | <p><i>ANET</i>, 204-205</p> <p>Stipulations(## 8-17) [Future Relations of the Two countries # 8 미래의 양국관계; Military Clauses ## 9-12 군사 문제; Dealings with Foreigners ## 13-17 외국인 문제)</p> <p>"# 8 And just as I shall be loyal toward you, even so shall I be loyal toward your son. But you, Duppi-Tessub, remain loyal toward the king of the Hatti land, the Hatti land, my sons and my grandsons forever! Do not turn your eyes to anyone else!"</p> |
| 언약문 | <p>출 20: 3-17 10 가지 계명(일반적인 조항)</p> <p>[Merrill: + 출 20:22-23:33 구체적인 조항]</p> <p>[Walton: + 출 20:22-23:33 언약서 + 출 34:10-26, 레 1-25 장 의식법]</p> <p>[Stuart: + 출 20:18-23:19 + 출 25:1-31:18]</p> |

- 1) 종주권 조약문의 준수조항들(stipulations)은 미래의 양국 관계를 위하여 종주국이 속국에 이행토록 요구하는 규정들이며 일반적인 조항들과 구체적인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 2) 메릴처럼 시내산 언약 체결을 출 19-24 장에 국한하여 보면 출애굽기 20:3-17 의 열개의 계명은 일반적인 조항에 해당하며, 십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 부분으로 언약서(the book of the covenant, 출 24:7)라고 부르는 출 20:22-23:33 은 구체적인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① 십계명은 일반적이고 무조건적이며 당위적(apodictic) 조항이며, 언약서의 조항들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적용되는 조건적인(casuistic) 조항이다.
 - ②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출 24:3)”는 바로 일반 조항인 십계명(출 20:1-17)과 구체적 조항인 언약서(출 20:22-23:33)를 각각 가리키는 것이다.

element in the ideals of covenants that we must never forget, and that's the element of human responsibility. Just like every suzerain-vassal treaty in the ancient world required loyalty from the subjects of the emperor, so it is that every single covenant in the Old Testament also required loyalty from the people of God. Now we always have to remember that the response of loyalty was always a response, a response to divine kindness — people did not earn their status before God. God established covenants with his people on the basis of his grace. But without exception, the ideals of the covenants always entail human responsibility — the requirement to live loyally before God.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러한 이상(理想)적인 요소들이 각각 어떻게 모든 구약의 언약에 들어있는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전 강의들에서 보았던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다섯 개의 언약 관계를 맺으셨다고 이해했다. 하나님은 아담과 노아를 통하여 모든 민족들과 언약들을 맺으셨다. 그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 그리고 포로기 이후 말일에 있을 미래의 새 언약 등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다. At this point, we need to think about how each of these ideal elements enter into every Old Testament covenant. As we saw in the preceding lessons, Old Testament prophets understood that God entered into five covenant relationships. He established covenants with all the nations of the earth through Adam and Noah. And then he called Israel into a special relationship through covenants with Abraham, Moses and David, as well as a future new covenant in the latter days after the exile.

아담 언약에 대하여 잠깐 생각해 보라. 아담 시대에 하나님의 은택은

③ 여기에 쓰인 용어 “말씀(מַדְבָּר דְּבַרִּים 드바림)”이 다른 곳에서 십계명을 지칭하는데 쓰였고 “율례(מִשְׁפָּטִים 미시파팀)”는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법령을 지칭하는데 사용된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3) 출 19-24 장의 범위를 넘어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언약을 조약문과 비교하는 월튼은 준수사항으로 십계명과 언약서와 의식법을 언급하였고 스튜어트는 준수조항으로 출 20:3-23:19 과 25:1-31:18 을 언급하였다.

그분이 인류를 위해 세상을 창조하신 방식 가운데 드러났다. 그분은 거주할 수 없는 혼돈의 세계를 취하여 인류가 거주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정원으로 만드셨다. Think for a moment about the covenant with Adam. In the days of Adam, God's benevolence was displayed in the way he created the world for humanity. He took an uninhabitable, chaotic creation and shaped it into a wonderful garden in which humanity was to dwell. As we read in Genesis 1:2:

Now the earth was formless and empty, darkness was over the surface of the deep, and the spirit of God was hovering over the waters (Genesis 1:2).

(창 1:2) 땅은 형태가 없었고 비어 있었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을 위해 낙원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낙원에 두셨다. 이 자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와 언약을 맺으셨던 기초이다. 동시에 인간의 책임 또한 아담 언약의 이상에서 요구되었다. 하나님은 에덴이란 굉장히 좋은 동산에 아담을 두셨지만 즉시로 심각한 규정들을 설명하셨다. 창 2:16-17 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Then God made a paradise for his image and placed Adam and Eve within that paradise. This mercy was the basis upon which God entered into covenant with our first parents, Adam and Eve. At the same time, human responsibility was also required in the covenant ideal with Adam. God put Adam in the wonderful Garden of Eden, but he immediately set forth serious stipulations. In Genesis 2:16-17, we read these words:

You are free to eat from any tree in the garden; but you must not eat from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for when you eat of it you will surely die (Genesis 2:16-17).

(창 2:16-17)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너는 먹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낙원에서조차도 언약의 이상(理想)은 하나님의 은택은 물론이고 인류의 책임도 포함하고 있었다. Even in paradise, the covenant ideal included not just the benevolence of God, but also the responsibility of the human race.

동일한 것이 노아의 언약에도 적용된다. 한편으로, 자비로우시게도 하나님은 세계적인 홍수로부터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해 주셨다. 창 6:7-8 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Well, the same is true with the covenant with Noah. On the one hand, God mercifully rescued Noah and his family from the worldwide flood. As Genesis 6:7-8 puts it:

So the Lord said, "I will wipe out mankind, whom I have created, from the face of the earth." ...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Genesis 6:7-8).

(창 6:7-8) 여호와께서 "내가 창조했던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 언약은 공들이지 않고 얻은 하나님의 자비에 기초하고 있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은 하나님의 은택과 호의를 인간의 책임과 결합시킨다. 노아가 홍수 후에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은 많은 명시적인 규정들을 설명하셨다. 창 9:7 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의 기본적인 인간적인 책임을 상키시키셨다. The covenant with Noah was based on unmerited, divine mercy. Even so, the covenant that God made with Noah joins divine benevolence and kindness with human responsibility. When Noah came out of the ark after the flood, God set forth a number of explicit

stipulations. In Genesis 9:7, God also reminded Noah of his basic human responsibility:

Be fruitful and increase in number; multiply on the earth and increase upon it (Genesis 9:7).

(창 9:7)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편만하고 거기서 번성하라.

이렇게 노아 언약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인간의 책임이 함께 나온다. Both divine mercy and human responsibility appear in the covenant with Noah.

이제 잠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맺으셨던 특별한 언약들을 살펴보자. 여러분은 이스라엘과의 첫 번째 언약이 족장 아브라함을 통해 맺어진 것임을 기억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언약에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한 족속을 땅의 모든 족속들 위에 복을 받도록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자비를 보이시며 창 12:2-3 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Now let's turn for a moment to the special covenants that God made with the nation of Israel. You'll recall that the first covenant with Israel was through the patriarch, Abraham. God's grace appears in this covenant because God chose this one family to be blessed above all the families on the earth. God showed great mercy toward Abraham when he said these words to him in Genesis 12:2-3:

I w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and I will bless you; I will make your name great, and you will be a blessing. I will bless those who bless you, and whoever curses you I will curse; and all people on the earth will be blessed through you (Genesis 12:2-3).

(창 12:2 -3)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고, 너에게 복을 주겠고, 네 이름을 크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되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은혜가 이 언약의 이상에서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책임 또한 아브라함 언약의 이상(理想)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족장 아브라함의 책임은 많은 경우에 전면에서 드러난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창 17:1-2 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Once again, divine grace is the central element in the covenant ideal. Nevertheless, human responsibility was also an essential part of the ideal of Abraham's covenant. The patriarch's responsibility comes to the foreground on many occasions. For instance, in Genesis 17:1-2, God says these words:

I am God Almighty; walk before me and be blameless. I will confirm my covenant between me and you and will greatly increase your numbers (Genesis 17:1-2).

(창 17:1-2)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며 완전하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두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심히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아브라함 언약에도 인간의 책임이 포함되어 있었다. The Abrahamic covenant included human responsibility.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맺으신 언약에 이르면 오늘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릇된 인상을 갖게 된다. 그들은 이 언약이 행위 중심적이라고 믿지만 이것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우리는 십계명이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들의 서문들과 아주 비슷하게 역사적 서문으로 시작한다는 사실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 어느 계명도 주어지기 전인 출 20:2 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When it comes to God's covenant with Moses, many Christians today have a false impression. They believe that this covenant was centered around works, but it wasn't. And we can see this plainly in the fact that the Ten Commandments begin with a historical prologue much like the prologues of Ancient Near Eastern suzerain treaties. Before any commandments were given, in Exodus 20:2 we read these words:

I am the Lord your God, who brought you out of the land of Egypt, out of the house of slavery (Exodus 20:2, ESV).

(출 20:2)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고 너를 애굽 땅 곧 종살이하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이 그분께 순종하기를 기대하셨지만, 이 순종에 대한 기대는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던 그분의 자비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었다. 물론 인간의 책임이란 다른 측면도 모세 언약에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인 출 19:5 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God expected his people to obey him, but on the basis of his act of mercy in bringing them out of the land of Egypt. Of course, the other side of human responsibility also appears in the covenant with Moses. Exodus 19:5 says these words to Israel:

Now if you obey me fully and keep my covenant, then out of all nations you will be my treasured possession (Exodus 19:5).

(출 19:5)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에 참으로 청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백성들 중에서 내 보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모세 언약의 이상적인 단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이 결합되어 있다. Divine grace was coupled with human responsibility in the ideal stage of the covenant with Moses.

다윗과의 왕조 언약도 하나님의 은택에 초점을 맞추었다. 삼하 7:8 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Now, the royal covenant with David also focused on divine benevolence. God spoke to David in this way in 2 Samuel 7:8:

I took you from the pasture and from following the flock to be ruler over my people Israel (2 Samuel 7:8).

(삼하 7:8) 나는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다.

하나님은 다윗 안에서 그분이 보셨던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 때문에 다윗 가문이 그분의 백성을 다스릴 영원한 왕조가 되도록 택하셨다. 다윗 왕조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이다. 동시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보이신 이 은혜에 인간의 충성에 대한 충성을 결합시키셨다. 충성의 요구들이 시 89:30-32 에 어떻게 진술되어 있는지 들어보라. God chose David's family as the permanent dynasty over his people out of love, not because of some merit that he saw in David. David's dynasty was established because God was merciful to him. At the same time, God joined this display of grace to David with the requirement of human loyalty. Listen to the way the requirements of loyalty are set forth in Psalm 89:30-32:

If [David's] sons forsake my law and do not follow my statutes, if they violate my decrees and fail to keep my

commands, I will punish their sin with the rod, their iniquity with flogging (Psalm 89:30-32).

(시 89:30-32) 만일 그[=다윗]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고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때로 그들의 범 죄를 벌하고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그분이 그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인정하며 그들이 그분께 충성하는 것이었다. God expected the sons of David to be faithful to him in recognition of the grace he had shown to them.

언약의 이상(理想)의 두 측면은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통해 도래할 것을 예언했던 새 언약에서도 나타난다. 사도 바울은 엡 2:8-10 에서 그것을 간결하게 표현했다. 먼저 엡 2:8-9 의 말씀을 들어보라. The two sides of the covenant ideal also appear in the new covenant, which the prophets predicted would come through the Messiah. The apostle Paul put it succinctly in Ephesians 2:8-10:

For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 and this is not from yourselves, it is a gift of God — not of works, so that no one can boast (Ephesians 2:8-9).

(엡 2:8-9) 너희는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이렇게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의 기초이다. 그러나 이제 엡 2:10 의 말씀을 들어보라. Grace is the basis of the covenant in Christ. But now listen to the words that follow in verse 10:

For we are God's workmanship, created in Christ Jesus to do good works, which God prepared in advance for us to do (Ephesians 2:10).

(엡 2:10)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행하도록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이다.

새 언약의 이상에도 역시 선행에 대한 인간의 책임이 포함되어 있다. The new covenant ideal also included the human responsibility of good works.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주제 곧 선지자들이 어떻게 이 언약의 구조들에 의지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At this point, we should turn our attention to our second topic: how the prophets relied on these covenant structures.

B. 선지자들의 사역(PROPHETIC MINISTRY)

한편으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자비로우신 행위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그러나 동시에 구약의 선지자들은 언약 안에 있는 인간의 책임에 그들의 많은 주의를 집중했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고 백성에게로 나아가 충성스러운 섬김의 요구를 상기시켰다. 우리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란 유형 공동체 안에 신자들과 불신자들이 함께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인해 그들은 언약 안에 있는 인간의 책임을 시험의 근거 혹은 검증의 근거로 다루었다. 언약의 규정들에 대한 백성의 반응은 그들 마음의 참된 성격을 보여주었다. On the one hand, the prophets constantly reminded the people of God of the mercies that Yahweh had shown them. At the same time, however, Old Testament prophets concentrated a lot of their attention

on human responsibility in the covenant. They were called by God to approach the people and to remind them of the requirement of loyal service. We must always remember that the prophets knew there were both believers and unbelievers within the visible community of Israel. And for this reason, they treated human responsibility in the covenant as a testing or proving ground. The response of people toward the stipulations of the covenant showed the true nature of their hearts.

한편으로 유형 공동체 안에 있는 불신자들은 그들이 언약적 책임들로부터 벗어나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적 믿음이 실제로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파렴치한 언약 위반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인간의 책임에 대한 시험은 참으로 무형적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밝혀 주었다. 이들은 영원히 구속 받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여호와에 대한 구원적 믿음을 행사했고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에 있었다. 그러나 사실상 신약과 매우 흡사하게 선지자들조차도 이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검증하라고 도전했다. 계 2:7 의 말씀을 들어보라. On the one hand, unbelievers within the visible community showed that they did not actually have saving faith because they would turn away from their covenant responsibilities. They failed to trust Yahweh for salvation, and they refused to give him their loyalty. These flagrant covenant violators would suffer the judgment of God. On the other hand, the test of human responsibility also identified those who were truly within the invisible covenant community. Now, these were people who were eternally redeemed. They had exercised saving faith in Yahweh, and they were on their way to eternal life. But the fact is that many times the prophets even challenged these people to prove their faith, much like the New Testament does. Listen to the words of Revelation 2:7:

He who has an ear, let him hear what the Spirit says to the churches. To him who overcomes, I will give the right to eat from the tree of life, which is in the paradise of God (Revelation 2:7).

(계 2:7 개역개정)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런 종류의 주제 곧 우리가 참으로 구원적 믿음을 갖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주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선지서 전반에 걸쳐 흐르는 주제이다. This kind of theme, that we must obey the Lord in order to prove that we genuinely do have saving faith, is a theme that runs throughout the prophets as well.

여기서 우리는 선지자들이 인간의 책임을 강조했다고 해서 그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사실을 말하면 선지자들은 순종과 충성의 모든 행위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했다. 우리는 성경의 전체 가르침으로부터도 이 사실 곧 백성이 주님께 충성할 때마다 주님의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순종해야 할 우리의 책임을 상기시켜 준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순종의 모든 행위 배후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순종과 충성을 촉구했다. Now we have to be careful here not to think that the prophets were legalists simply because they emphasized human responsibility. The reality is that the prophets understood that God's grace was behind every act of obedience and faithfulness. We know this too from the whole teaching of scripture, that whenever people are faithful to the Lord, it's because the Spirit of the Lord is working within them. At the same time, however, the Bible constantly reminds us of our responsibility to obey. And because the prophets knew that God's grace was behind every act of obedience, they did not hesitate to call God's people into obedience and faithfulness.

지금까지 언약들의 역학적 원리를 탐구하며 우리는 언약의 이상(理想)의 두 측면을 살펴보았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두 번째 주제인 언약의 심판에 둘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을 때 언약의 삶의 역학적 원리는 무엇이었는가? So far in our

examination of the dynamics of the covenants, we have seen the two sides of the covenant ideal. At this point, we should turn our attention to our second topic, covenant judgment. What were the dynamics of covenant life when the people of God turned away from service to the Lord?

III. 언약의 심판(COVENANT JUDGMENT)

전 세계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들이 세운 정부가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세운 모든 정부에 공통되는 한 가지 일이 있다. 모든 정부들은 그 영토의 국민이 모든 법을 지키지는 않을 것이고 그 결과로 범죄와 처벌의 제도를 수립하는 것을 인정한다. 같은 종류의 일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에도 적용되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셨다.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에 대하여 반역할 것을 아시고 그분의 백성 위에 심판의 제도를 세우셨다. 선지자들은 이 심판의 제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들은 언약의 사자들이었다. 선지자들은 백성의 범죄를 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긴 백성에게 주실 형벌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선지자들이 어떻게 심판의 사자로서 역할을 담당했는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위에 놓으신 언약의 심판의 두 가지 요소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우리는 선지자들이 선언했던 심판의 유형들을 탐구할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이 심판이 이르게 되는 과정을 탐구할 것이다. 그럼 먼저 구약의 선지자들이 여호와와 맺은 언약을 파렴치하게 어긴 자들을 향해 경고했던 심판의 유형들을 살펴보자. There are many forms of human government throughout the world. But there's one thing in common with every single human government: they all recognize that the people of the land will not obey all of their laws, and as a result, they establish a system of crime and punishment. The same kind of thing was true in God's covenant with Israel. He knew that his people were sinners. He knew that they would rebel against him and so he also set up a system of judgment over his people. The prophets played a very important role in this system of judgment. They were messengers of the covenant. They brought to mind the crimes, and they also warned of the punishments

that God would give to his people if they violated his covenant. Now, to understand how the prophets functioned as messengers of judgment, we need to understand two elements of covenant judgment that God held over his people. First, we'll explore the types of judgments that prophets announced, and second, we'll explore the process which these judgments would follow. Let's take a look first at the types of judgments that Old Testament prophets threatened against those who flagrantly violated their covenant with Yahweh.

A. 심판의 유형들(TYPES OF JUDGMENT)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매우 중요한 일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스스로 경고했던 심판의 유형들을 창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기대할 심판의 종류들에 대한 명부들이나 목록들을 구약 성경에 근거하여 찾았다. 선지자들의 어휘는 그들이 자주 모세의 책들에서 유래한 구절들에 의지하였던 것을 드러낸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가올 심판의 종류들의 목록을 만들 때 그들을 인도했던 다섯 개의 주요한 구절들이 있다. 신 4:25-28; 28:15-68; 29:16-29; 32:15-43 그리고 레 26:14-39 등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내리실 심판의 유형들을 이해하려고 할 때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이 구절들에는 매우 많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말하는 것을 요약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모세가 그 백성에게 언약의 심판에 두 가지 기본적인 범주가 있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 이 구절들을 기록했다고 말하는 것은 무난할 것이다. It's very important to realize that Old Testament prophets did not invent the types of judgments that they threatened. On the contrary, they looked to the Scriptures of the Old Testaments for lists or catalogs of the kinds of judgments that the people of God should expect. The vocabulary of the prophets reveals that they often depended on passages that come from the books of Moses. There are five main passages that guided the prophets as they listed off the kinds of judgments that would come against the people of God: Deuteronomy 4:25-28, Deuteronomy 28:15-68, Deuteronomy 29:16-29,

and Deuteronomy 32:15-43, and finally Leviticus 26:14-39 provided information to the prophets as they sought to understand the types of judgments that God would bring against his people. There is so much material in these passages that it is difficult to summarize what they say. But it is safe to say that Moses wrote these passages to convey to the nation that there were two basic categories of covenant judgment.

1. 자연계를 통한 심판(Judgment in Nature)

언약의 심판의 첫 번째 유형은 하나님께서 지속되는 죄에 대하여 자연계를 통한 심판으로 반응하실 것이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질서로부터 그분의 복을 제거하심으로써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대적인 현상을 보일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젓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들이셨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약속의 땅에서 자연 질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엄청난 복이 될 것이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반역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 이 복을 제거하실 것이라고 경고했다. 어떤 종류의 자연계의 심판들이 유형적 언약 공동체에게 임할 것인가? 신명기 4 장, 28 장, 29 장, 32 장 그리고 레위기 26 장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할 자연계의 심판의 적어도 여섯 가지 주요한 유형을 열거한다. 첫째로, 모세의 책들에 나오는 이 다섯 개의 장들은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스라엘의 땅에 가뭄을 보내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 준다. 이 가뭄은 땅을 마르게 할 것이므로 백성은 심히 고통을 당할 것이고 역병이 있을 것이다. 백성이 주님께 파렴치하게 반역할 때 기근도 임하므로 그들에게 음식이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질병이 그들에게 임하므로 그들은 열병, 종기, 종양, 염병 등에 시달릴 것이다. 야생 동물들이 인간의 삶을 위협할 것이고 인구의 감소가 있을 것이다. 불임과 요절로 인해 약속의 땅에서 가축들과 사람들의 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 The first type of covenant judgment is that God would respond to persistent sin with judgment in nature. God threatens to remove his blessing from the natural order so that the world would become hostile to the people of God. You'll recall that God brought Israel to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The natural order in the

Promised Land was going to be a tremendous blessing to the people of God. But the prophets warned that when Israel rebels, he will remove this blessing in judgment. Now, what kinds of natural judgments would come against the visible covenant community? Deuteronomy 4, 28, 29, and 32 as well as Leviticus 26 list at least six major types of natural judgments against the people of God. First, these chapters in the books of Moses tell us that God will sometimes send drought to the land of Israel. This drought would dry up the land so that the people will suffer tremendously, and there will be a pestilence. Famine will also come so that the people will have no food when they rebel flagrantly against the Lord. And disease will come upon them — they will receive fevers and boils and tumors and plagues. Wild animals will threaten human life and there will be a loss of population. Infertility and untimely death will decimate the animal and human population in the Land of Promise.

반복해서 선지자들은 이런 종류의 언약 심판들을 언급했다. 그들은 자주 하나님께서 어떤 자연 재앙을 보내시어 약속의 땅에서의 삶을 파괴하실 것이라고 경고했다. 예를 들어 학 1:9-11 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들어보라. The prophets mentioned these kinds of covenant judgments time and again. They often warned that God was going to bring some natural disaster to disrupt life in the Promised Land. For example, listen to what God said in Haggai 1:9-11:

My house ... remains a ruin, while each of you is busy with his own house. Therefore, because of you the heavens have withheld their dew and the earth its crops. I called for a drought on the fields and the mountains, on the grain, the new wine, the oil and whatever the ground produces, on men and cattle, and on the labor of your hands (Haggai 1:9-11).

(학 1:9-11 개역개정)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자주 그분의 선지자들로 심판이 자연계에 임할 것임을 선언하도록 하셨다. God often had his prophets announce that judgment was coming in the natural order.

2. 전쟁을 통한 심판(Judgment in Warfare)

자연계를 통한 심판 이외에도 우리는 선지자들이 전쟁을 통한 심판을 선언했던 것도 발견한다. 전쟁이 자주 기근과 질병 같은 자연적 참사를 가져오지만 하나님은 언약 심판의 한 유형으로서 그분의 백성에게 적군을 보내기도 하셨다. 모세의 글에는 많은 전쟁 주제가 나온다. 신명기 4, 28, 29, 32 장 그리고 레위기 26 장에서 우리는 적어도 전쟁을 통한 심판의 다섯 가지 중요한 범주를 발견한다.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패전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적군의 공격을 저항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로, 그들의 성들이 포위 당할 것이다. 성읍들이 적군에 의해 에워싸여 그 주민들은 고통을 겪을 것이다. 셋째로, 적군에 의해 땅이 점령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적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다스릴 것이다. 넷째로,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적군의 손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죽음과 파멸은 전쟁을 통한 언약의 저주들 중 하나이다. 다섯째로, 모든 저주들 중에서 가장 나쁜 저주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 이방 나라들 가운데 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Now in addition to judgment in nature, we also find that the prophets announced judgment in warfare. War often brings natural horrors, such as famine and disease, but God also spoke of sending human enemies against his people as a kind of covenant judgment. A number of warfare motifs appear in the writings of Moses. In Deuteronomy 4, 28, 29, 32 and Leviticus 26, we find at least five major categories of judgment in warfare. First, the people of God will suffer defeat. They will not be able to withstand the attacks of their enemies. Second, sieges will be laid against their cities.

Cities will be surrounded by enemies and their inhabitants will suffer. Then there will be occupation of the land by enemies. The enemies of God's people will come into the Land of Promise and take control. Death and destruction is another covenant curse in warfare, because many of God's people will die at the hands of their enemies. And finally, the worse curse of all — God says that his people will be taken captive and scattered among the nations in exile.

반복해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적들에 의해 패배할 것이라고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추방 당하는 일이 다가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예를 들면, 선지자 미가는 많은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에서 추방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1:16 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국외 추방에 대한 말씀을 읽는다. Time and again the prophets not only announced that the people of God would be defeated by their enemies, but they also warned that exile from the Promised Land was coming. For example, the prophet Micah warned that many Judaites would be exiled from the Land of Promise. In Micah 1:16 we can read these words of exile:

Shave your heads in mourning for your children in whom you delight; make yourselves as bald as the vulture, for they will go from you in exile (Micah 1:16).

(미 1:16) 네 기뻐하는 자녀들을 생각하며 머리를 밀고, 독수리처럼 대머리가 되어라. 이는 그들이 네 곁을 떠나 사로잡혀 갈 것이다.

이와 같은 심판과 전쟁의 위협은 구약 선지서 전반에 걸쳐 나온다. Threats of judgment and warfare like these appear throughout the Old Testament prophets.

지금까지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언약 심판의 두 가지 기본적인 유형들 곧 자연 재앙들과 전쟁을 선언했던 것을 살펴보았다. ⁴ 이제

⁴ [역자 주] 피와 스튜아트(Fee and Stuart, *How to Read the Bible for All its Worth*, 168)는 기억하기 좋도록 하기 위해 문자 “d”로 시작하는 열 가지 심판을 말했다. (10 corporate curses: 10 d-word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이런 유형들의 심판을 내리실 때 말씀하신 바 그분이 취하실 과정을 고찰해보자. So we see that Old Testament prophets announced two basic types of covenant judgment: natural disasters and warfare. Now let's take a look at the process that God said he would follow as he imposed these kinds of judgments on his people.

B. 심판의 과정(PROCESS OF JUDGMENT)

선지자들은 심판의 어떤 과정들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했는가? 선지자들은 일차적으로 레 26:14-39 에서 심판의 과정을 배웠다. 이 단락에서 모세는 심판이 오랜 기간에 걸쳐 일어나고 특별한 패턴을 따르는 것으로 묘사했다. 이 단락을 검토하며 우리는 이런 심판들이 임할 방식을 지배하는 적어도 세 가지 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인내를 보이실 것이다. 그러나 임하는 심판들은 정도에 있어서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 심판들은 한 특별한 절정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럼 먼저 하나님의 인내에 관하여 생각해 보자. What processes of judgment did the prophets expect to take place? The prophets learned the process of judgment primarily from Leviticus 26:14-39. In this passage, Moses describes judgment as something that takes place over a long period of time and follows a particular pattern. As we examine this passage, we'll find at least three principles that govern the manner in which these judgments will come. God will show patience, but the judgments would increase in severity, and there will be a particular climax to these judgments. Let's think first about divine patience.

1. 하나님의 인내(Divine Patience)

punishments): Death, disease, drought, dearth, danger, destruction, defeat, deportation, destitution, disgrace 죽음, 질병, 가뭄(한발), 기근(식량 부족), 위험, 파멸(파괴), 패전, 국외 추방(포로 생활), 빈곤(자원 결핍, 극빈), 치욕(수치)

레위기 26 장 14-39 절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이 범죄할 때 그들에 대하여 대단한 인내심을 발휘하실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반역할 것이고 완고해져서 회개하길 거부할 것을 인식하고 계셨다. 그래서 이 단락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매우 인내하실 것을 알려주었다. 레 26:14-39 은 5 개의 주요 부분 곧 14-17 절, 18-20 절, 21-22 절, 23-26 절 그리고 27-39 절로 나눌 수 있다. 이 주요 부분들은 각각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에게 청종하지 않으면 . . .”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시작하고 계속해서 그럴 경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며 무슨 일을 행하실지를 말하고 있다. “너희가 나를 청종하지 않으면”이란 어구의 반복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심으로써 그들에 대하여 인내하실 의도가 있으셨음을 보여준다. Leviticus 26:14-

39 makes it clear that God exercises great patience toward his people when they sin. God realizes that his people will rebel and that they will be stubborn, refusing to repent. So in this passage, Moses reveals that God will be very patient with his people. Leviticus 26 divides into five main sections: verses 14-17, 18-20, 21-22, 23-26, and 27-39. Each of these segments begins with God saying this: “If you will not listen to me...” and then he goes on to say what he will do to Israel in judgment. This repetition of “If you will not listen to me” shows that God intended to be patient with his people by giving them many opportunities for repentance.

하나님의 인내에 대한 가장 간결한 묘사는 구약의 선지서 안에 나온다. 요엘 선지자는 백성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할 때 요엘 2 장에서 하나님의 인내에 관하여 말했다. 올 2:13 에서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One of the most succinct descriptions of the patience of God appears within Old Testament prophecy. The prophet Joel spoke of God’s patience in Joel 2 when he called the people to repent. In 2:13, he said these words to Israel:

Return to the Lord your God, for he is gracious and compassionate, slow to anger and abounding in love, and he relents from sending calamity (Joel 2:13).

(을 2:13 개역개정)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들은 언약의 심판을 매우 굳세게 믿었지만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에 대하여 매우 인내하신다는 것도 믿었다. The prophets believed very strongly in covenant judgment, but they also believed that Yahweh was very patient with his people.

레위기 26 장에 나오는 언약 심판의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께서는 참으실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두 번째 원리도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실 언약의 심판들이 점점 강도가 심한 상태로 임할 것이라는 점이다. The first principle of covenant judgment in Leviticus 26 is that God will be patient. But there is a second principle as well — God’s covenant judgments will come with increasing severity.

2. 증대되는 가혹성(Increasing Severity)

레 26:14-39 의 다섯 부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과 똑같이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심판의 가혹성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 준다. 레 26:18, 21, 24, 28 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이런 식으로, 곧 그들이 하나님께 계속 반역하면 심판들을 일곱 배나 더 증대시킬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Just as the five segments of Leviticus 26 tell us that God is patient, they also tell us that God will increase the severity of his judgments. In verses 18, 21, 24 and 28, God warns his people in this way: if they continue to rebel against him, then he will increase the judgments seven times over.

레위기 26 장의 이러한 차원은 언약 심판들이 정도가 조절되며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준다. 때때로 선지자들은 비교적 작은 규모의 심판들에 대하여 경고했고 그 다음으로 나중에 다가올 더 큰 규모의 심판들에 대하여 경고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사 38:1 에서 보다 더 작은 심판에 관하여 읽는다. This dimension of Leviticus 26 tells us that covenant judgment comes in degrees. Sometimes the prophets warned of relatively small judgments, and then they later warned of greater judgments to come. For example, we read of one smaller judgment in the book of Isaiah 38:1:

Put your house in order, because you are going to die; you will not recover (Isaiah 38:1).

(사 38:1) 네가 곧 죽을 것이니 네 집을 정리하라. 네가 다시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 자신은 이것이 자기에 대한 큰 언약 심판이라고 생각한 것이 틀림없지만 나라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아주 작은 것으로 단지 한 개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심지어 앗수르의 침공으로부터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은 이후라 할지라도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복종하기를 거절했을 때 이사야는 훨씬 더 가혹한 심판을 전했다. 이사야는 어느 날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나라 전체를 정복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사 39:6 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Now, I'm sure that Hezekiah himself thought this was a great covenant judgment against him, but in terms of the whole nation, it was rather small—it was just one individual suffering the judgment of God. But on the other hand, after Hezekiah refused to submit himself to Yahweh, even after a miraculous deliverance from the attacking Assyrians, Isaiah gave a much more severe judgment. He announced that one day the Babylonians would conquer the entire nation of Judah. In Isaiah 39:6, we read these words:

The time will surely come when everything in your palace ... will be carried off to Babylon. Nothing will be left (Isaiah 39:6). (사 39:6) 네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이 . . . 바벨론으로 옮겨질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때 아무 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 진술은 히스기야의 자신 건강에 대한 위협보다 훨씬 더 가혹하다. 그것은 나라 전체에 대한 위협이다. 그런데 많은 선지자들이 이와 동일한 패턴을 따르곤 했다. 그들은 점점 가혹해지는 심판들에 대하여 말했다. This statement was much more severe than the threat against Hezekiah about his personal health. It was a threat against the entire nation. And many prophets would follow this very same pattern. They would speak of increasing judgments.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으신다는 첫 번째 원리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점점 더 가혹해지는 언약 심판을 내리신다는 두 번째 원리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심판의 절정이 본토로부터 추방하는 것이라는 세 번째 원리도 발견한다. Not only do we find that God brought covenant judgments with patience and increasing severity, but we also find a third principle: the climax of judgment is exile from the land.

3. 특별한 절정(Particular Climax)

언약 심판에 대한 마지막 부분인 레 26:27-39 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닥칠 가장 나쁜 심판이 땅의 황폐와 약속의 땅으로부터의 추방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레 26:33 에서 모세가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을 들어보라. The last section of Leviticus 26:27-39 warns that the worst judgment to come against the people of God would be an utter devastation of the land and exile from the Land of Promise. Listen to the way Moses puts it in Leviticus 26:33:

I will scatter you among the nations and will draw out my sword and pursue you. Your land will be laid waste, and your cities will lie in ruins (Leviticus 26:33).

(레 26:33 개역개정)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흠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구약의 신자들의 마음으로 이보다 더 나쁜 것을 상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들이셨는데 이제 선지자들은 이 땅으로부터 추방 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었다. 우리가 성경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반복해서 그분의 백성을 그 땅으로부터 쫓아내실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예를 들면, 암 5:26-27 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In the minds of Old Testament believers, it was hard to imagine anything worse than this. God had brought Israel to a Land of Promise,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and now the prophets were announcing that there was going to be an exile from this land. By the time we come to most biblical prophets, God had already warned time and again that he was going to send his people out of the land. And so we find the prophets announcing that exile was coming. For example, in Amos 5:26-27, we read these words:

You have lifted up the shrine of your king, the pedestal of your idols, the star of your god — which you have made for yourselves. Therefore I will send you into exile (Amos 5:26-27).

(암 5:26-27) 너희가 너희 왕 식곳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모세가 레위기 26 장과 많은 다른 구절들에서 국외 추방에 대한 위협을 매우 분명하게 말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그것을 믿기 어려운 일로 여겼다.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백성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으실 것이고 적어도 예루살렘은 고스란히 온전하게 남아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 보통이었다.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에 인간의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잊어버렸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있던 마지막 해들에조차도 예레미야가 그 성과 성전의 멸망이 다가오고 있다고 선언해야만 했던 이유였다. 렘 7:13-15 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Although Moses made the threat of exile very clear in Leviticus 26 and a number of other passages, the people of Israel still found it hard to believe. It was popular to believe that God would never utterly drive out his people—at least Jerusalem would remain intact. The people had forgotten that their covenant with Yahweh entailed human responsibility, and this is why even in the last years of Jerusalem’s safety, Jeremiah had to proclaim that the destruction of the city and the temple was coming. In Jeremiah 7:13-15 we read these words:

While you were doing all these things, declares the Lord, I spoke to you again and again, but you did not listen; I called you, but you did not answer. Therefore, what I did to Shiloh I will now do to the house that bears my Name, the temple you trust in, the place I gave to you and your fathers. I will thrust you from my presence, just as I did all your brothers, the people of Ephraim (Jeremiah 7:13-15).

(렘 7:13-15)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참으시고 그분의 백성에게 자비로우시다. 그분이 진노하시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성나서 진노하실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 대하여 정말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분이 그분의 백성에 대하여 행하시는 심판은 오래 참으시고 자비로우신 심판이다. God is gracious and patient and kind to his people; it takes a long time to make him angry, but he can be provoked to anger. And so we discover that God does have judgment over his people, but it is a patient and a kind judgment that he exercises over his people.

언약들의 역학적 원리를 다루는 이번 강의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언약의 이상과 언약의 심판을 살펴보았다. 이제 우리의 논의의 세 번째 요소인 언약의 복들을 고찰해보자.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그의 복들을 어떻게 쏟아 부으시는가? So far in this lesson on the dynamics of the covenants, we have seen the covenant ideal and covenant judgment. Now let's look at the third element in our discussion: covenant blessings. How does God pour out his blessings on his people?

IV. 언약의 복들(COVENANT BLESSINGS)

당신은 다른 사람이 놓아주지 않는 친구 관계를 가져본 적이 있는가? 아마도 당신이 멀리 이사를 갔고 편지를 받고 답장하는 것을 잊어버린 후에조차도 편지를 계속 보내거나 전화가 와서 다시 신실한 친구 관계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을 것이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내내 당신과 붙어 있는 그러한 친구들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와 똑같은 일은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관계에도 들어맞는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가혹하게 심판하실 것임을 알았지만 여호와께서 결코 그분의 언약 백성을 놓아주지 않으실 것 또한 알았고 선포했다. Have you ever been in a friendship where the other person just won't let go? Maybe you've moved far away and the letters keep coming even after you forget to respond, or the

phone call comes and it's your faithful friend again. Well, it's good to have friends like that, that stick with you throughout all of history. And the same was true for Yahweh and his relationship with Israel. The prophets knew that God would judge his people severely, but they also knew and proclaimed that Yahweh would never let go of his covenant people.

언약의 삶의 이러한 측면을 탐구하기 위해 우리는 심판에 대한 고찰에서 했던 것처럼 두 가지 고려 사항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우리는 언약의 복의 유형들을 살필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언약의 복의 과정을 살필 것이다. To explore this side of covenant life, we need to look at two considerations, just as we did in the examination of judgment. First, we'll look at the types of covenant blessing and then we'll look at the process of covenant blessing.

A. 복들의 유형들(TYPES OF BLESSINGS)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애쓸 때 복들이 그들에게 임한다. 물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완전하기를 기대하시지는 않지만 그들이 진지하게 그분을 찾고 그분을 반역하지 않기를 참으로 기대하신다. 언약의 백성이 이렇게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성한 복을 주신다. Blessings come to the people of God when they seek to be faithful to him. Of course, God does not expect his people to be perfect, but he does expect them to seek him sincerely, and not to rebel against him. When the people of the covenant are faithful in this way, God richly blessed them.

1. 자연계를 통한 복(Blessing in Nature)

복들의 첫 번째 범주는 자연계를 통한 복이다. 모세는 자연계를 통한 심판에 대하여 말했을 뿐만 아니라 자연계를 통해 올 복에 대해서도 말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자연적 복들을 주실 것임을 알려주었다. 이런 종류의 주제는 신명기 4 장, 28 장, 30 장과 레위기 26 장에서 적어도 네 가지 방식으로 나온다.

첫째로, 모세는 풍성한 농산물에 대하여 말했다. 그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께 충성하면 밭은 농작물로 가득 찰 것이다. 둘째로, 모세는 다산하는 가축에 대하여 말했다. 그 백성이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면 가축은 거대한 수로 늘어날 것이다. 셋째로, 건강과 번영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올 것이다. 그들은 전반적인 건강과 안녕을 누릴 것이다. 넷째로, 이와 더불어 인구가 증가할 것이다. 이스라엘인의 수가 증가하므로 약속의 땅은 그들로 가득 찰 것이다. The first category of blessings is blessing in nature. Just as Moses spoke of judgment in nature, he also spoke of blessing that would come in the natural realm. Moses revealed to Israel that God offered tremendous natural blessings if they would only serve him faithfully. This kind of motif appears in at least four ways in Deuteronomy 4, 28, 30, and Leviticus 26. First, Moses spoke of agricultural plenty. The fields would be full of crops if the people would be faithful to their Lord. Also, he speaks of livestock having fertility. The livestock would grow in great numbers if the people would serve the Lord faithfully. Health and prosperity would come to the people of God. They would enjoy general health and well-being, and in addition to this, the population would increase. The numbers of Israelites would increase so that they would fill the Land of Promise.

우리는 자연계를 통한 복들의 선언으로 인해 놀라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분은 낙원 곧 에덴 동산에 인간을 두셨다. 그러나 그 때 하나님은 죄 때문에 인간을 거기서 쫓아내셨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 자신에게 충성할 때 그들에게 복들 곧 자연계를 통한 복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태초에 인간이 갖도록 의도하셨던 것들과 같은 것을 경험할 수 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여러 가지 면으로 자연계의 풍성한 복들에 대하여 말했다. 욥 2:22-23 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Announcements of blessings in nature shouldn't surprise us. When God first made humanity, he set us within a paradise — the Garden of Eden. But then God drove us out because of sin. When God's covenant people are faithful to him he promises to give them blessings, blessings in nature, so that they can experience the kinds of

things God meant for the human race to have in the very beginning. Old Testament prophets spoke about the blessings of natural bounty in many ways. Listen to one example. In Joel 2:22-23 we read:

Do not be afraid, O wild animals, for the open pastures are becoming green. The trees are bearing their fruit; the fig tree and the vine yield their riches. Be glad, O people of Zion, rejoice in the Lord your God, for he has given you the autumn rains in righteousness (Joel 2:22-23).

(욘 2:22-23 개역개정)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와 매우 흡사하게 스가라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주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들을 볼 것이라고 예언했다. 스 8:12 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온다. In much the same way, Zechariah predicted that the people in his day would see the blessings of God when they obeyed the Lord. Zechariah 8:12 says these words:

The seed will grow well, the vine will yield its fruit, the ground will produce its crops, and the heavens will drop their dew (Zechariah 8:12).

(스 8:12) 씨앗은 잘 자라고,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고, 땅은 곡식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릴 것이다.

2. 전쟁을 통한 복(Blessing in Warfare)

첫 번째 유형의 언약의 복들이 자연계의 풍성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반복해서 나오는 두 번째 주요 범주의 복은 전쟁을 통한 복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을 때 전쟁에서 패배를 당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언약의 복들 아래 있었을 때 승리와 평강을 경험했다. 이 주제는 신명기 4 장, 28 장, 30 장과 레위기 26 장에서 적어도 네 가지 방식으로 나온다. 첫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을 패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둘째로, 전쟁이 끝날 것이다. 셋째로, 열국들에 대한 적대 행위가 그칠 것이고 모든 파멸로부터 구출 받을 것이다. 넷째로, 약속의 땅으로부터 사로잡혀 갔었던 포로들의 귀환이 있을 것이다. Although the first type of covenant blessings focuses on natural bounty, a second major category appears time and again in the prophets, and this is blessing in warfare. Just as the people of the covenant suffered defeat in war when they were under God's judgment, they experienced victory and peace when they were under the blessings of covenant. This motif appears in at least four ways in Deuteronomy 4, 28, 30, and Leviticus 26. First, Moses tells the people of God that they would defeat their enemies. But beyond this, there would be an end to warfare; hostility with the nations would cease and there would be relief from all destruction. And, of course, there would be a return of any captives who had been taken away from the Land of Promise.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러한 종류들의 전쟁을 통한 복들에 대하여 말했다. 아모스가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장엄한 미래의 군사적 성공을 어떻게 예언했는지 들어보라. 암 9:11-12 에서 아모스는 후포로기에 대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했다. Old Testament prophets often spoke of these kinds of blessings in warfare. Listen to how Amos predicted a grand future of military success for the nation of Israel. In Amos 9:11-12, he said these words about the post-exilic period:

In that day I will restore David's fallen tent. I will repair its broken places ... and build it as it used to be, so that they

may possess the remnant of Edom and all the nations that bear my name (Amos 9:11-12).

(암 9:11-12 개역개정)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대립과 분쟁의 세상에서 선지자 아모스는 다윗의 집이 모든 대적하는 적들을 이길 것을 선언했다. 이와 매우 흡사하게 미 4:3 에서 미가 선지자는 이러한 승리의 결과로 큰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In a world of hostilities and troubles, the prophet Amos announced that the house of David would have victory over all hostile enemies. And in much the same way, Micah in 4:3 announced that there would be great peace as a result of these victories:

They will beat their swords into plowshares and their spears into pruning hooks. Nation will not take up sword against nation, nor will they train for war anymore (Micah 4:3).

(미 4:3 개역개정)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이 구절들을 통해 우리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에 자신들을 맞추었던 것을 볼 수 있다. 선지자들에게 심판과 죄에 관하여 말할 많은 부정적인 것이 있었을지라도 그들은 또한 회개와 충성이 자연계와 전쟁을 통한 큰 복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⁵ So we can see from these passages

⁵ [역자 주] 피와 스튜아트(Fee and Stuart, *How to Read the Bible for All its Worth*, 168)는 복을 여섯 가지로 요약했다. (6 corporate blessings): life, health, prosperity, agricultural abundance, respect, safety 생명, 건강, 번영, 농작물의 풍성함, 존경, 안전

that the prophets oriented themselves toward the grace and the blessings of God. Although the prophets had much negative to say about judgment and about sin, the prophets also said that repentance and fidelity would lead to great blessings in nature and in war.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내리실 복들의 유형들을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이러한 복들이 임하는 과정들을 고찰해 볼 것이다. Now that we've seen the types of blessings which God would bring to his people, we should also look into the processes by which these blessings would come.

B. 복들의 과정(PROCESS OF BLESSINGS)

심판의 과정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복의 과정도 있다. 하나님의 복의 과정을 지배하는 적어도 세 가지 원리가 있다. 첫째로, 복들은 은혜로 말미암아 온다. 둘째로, 복들은 다양한 정도 조절을 통해 온다. 셋째로, 하나님의 복들의 절정이 있다. Just as there was a process of judgment, so there is also a process of blessing as well. There are at least three principles that govern the process of divine blessing: first, blessings come through grace; and then blessings come in various degrees; and that there is a climax of the blessings of God.

1. 은혜(Grace)

너무나 자주 현대 기독교인들은 구약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그들의 구원을 얻거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의로움을 얻었다는 잘못된 인상을 갖고 있다. 이보다 더 사실과 거리가 먼 것은 없다. 선지자들은 남자와 여자들에게 행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라고 촉구했다. 호 14:1-2 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All too often, modern Christians have the false impression that in the Old Testament people earned their salvation or earned their righteousness before God. But nothing could be further from the truth. The prophets did not offer men and women the way of salvation

through works. They called on people to repent and to seek the mercy of God. In Hosea 14:1-2, we read these words:

Return, O Israel, to the Lord your God. Your sins have been your downfall! ... Say to him, "Forgive all our sins and receive us graciously, that we may offer the fruit of our lips" (Hosea 14:1-2).

(호 14:1-2 새번역)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네가 지은 죄가 너를 걸어 거꾸러뜨렸지만,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어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 주십시오.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호세아가 그의 독자들에게 그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하나님의 복들을 얻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은 것에 주목하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신실한 자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만이 복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언약의 복의 기초로서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용서를 구했다. Notice that Hosea did not say that his readers should work hard and earn the blessings of God. On the contrary, the faithful in Israel knew that only mercy from God would bring about blessings. They sought forgiveness as a basis of covenant blessing — not human merit.

2. 정도들(Degrees)

언약의 복들을 지배하는 두 번째 원리는 그것들이 다양한 정도 조절을 통해 온다는 것이다. 심판이 정도가 다르게 임했듯이 우리는 더 작은 복들과 더 큰 복들에 대하여 말할 수 있다. 선지자들은 저울의 더 낮은 끝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비교적 작은 자비로우신 행위들에 대하여 말했다. 예를 들면,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그가 곧 병들어 죽을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살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할 때 그 왕에게 작은 복을

선언했다. 사 38:5 에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The second principle that governs covenant blessings is that they come in varying degrees. Just as judgments came in degrees, so we may speak of lesser and greater blessings. On the lower end of the scale, Old Testament prophets spoke of relatively small mercies from God. For example, just as Isaiah told Hezekiah he was going to become ill and die, he also announced a small blessing to the king when he told him that God would let him live. In Isaiah 38:5, God said:

Go tell Hezekiah, "This is what the Lord, the God of your father David, says: I have heard your prayers and seen your tears; I will add fifteen years to your life" (Isaiah 38:5).

(사 38:5 개역개정)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한에 십오 년을 더할 것이다

상당히 많은 예언들은 이러한 개인적이거나 개별적인 종류의 복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여러 번에 걸쳐서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베푸실 커다란 국가적 복들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예를 들면, 주전 701 년에 앓수르인들이 유다를 침공하여 예루살렘의 문들에까지 이르렀다. 사 37:34-35 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 큰 정복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을 분명하게 선언했다. A good number of prophecies focus on these personal or individual kinds of blessings. But many times, the prophets also turned their attention to the great national blessings that God would bring to his people. For example, in 701 the Assyrians attacked Judah and had come right to the gates of Jerusalem. In Isaiah 37:34-35, the prophet announced clearly that God would deliver the people from this great defeat:

"By the way that he came he will return; he will not enter this city," declares the Lord. "I will defend this city and save it, for

my sake and for the sake of David my servant!” (Isaiah 37:34-35).

(사 37:34-35 개역개정)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와 그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그들의 존재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큰 복이었다.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들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 백성에게 선언하셨던 더 작은 복들과 더 큰 복들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This was a great blessing to the people of God because their very existence was being threatened and God said he would give them the blessing of victory in war. As we read Old Testament prophets, we must always be alert to the smaller and to the greater blessings which God announced to his covenant people.

3. 절정(Climax)

하나님의 은혜라는 첫 번째 원리와 복의 정도라는 두 번째 원리 이외에도 세 번째 원리가 언약의 복들을 지배하는데 그것은 남은 자들의 회복이라는 절정이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제아무리 큰 심판이 임한다고 할지라도 항상 남은 자가 있을 것임을 믿었다. 이 남은 자는 백성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매우 클 수도 있고 매우 작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안전하게 보존하시고 그 남은 자에 기초하여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렘 5:18 에서 남은 자가 살아남을 것임을 그 백성에게 확신시켰다. In addition to divine grace and degrees of blessing, a third principle governs covenant blessings — the climax of the remnant’s restoration. Old Testament prophets believed that no matter how great a judgment might come, there would always be a remnant. Now, this remnant could be very large or it could be very small, depending on how the people

reacted. But the prophets always said God would keep a remnant safe and would build on that remnant. For instance, Jeremiah said that Jerusalem would be utterly destroyed, but in Jeremiah 5:18, he assures the people that a remnant would survive:

“Even in those days,” declares the Lord, “I will not destroy you completely” (Jeremiah 5:18).

(렘 5:18)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남은 자의 존속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바로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모든 복들 중의 가장 큰 복을 내리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The survival of a remnant is important, because it was through a remnant that God promised to bring the greatest blessing of all to his people.

우리는 이미 레위기 26 장으로부터 가장 나쁜 언약의 저주가 약속의 본토로부터 국외로 추방당하는 것임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레위기 26:40-45 과 신명기 4 장과 30 장에서 하나님은 남은 자를 보존하시고 그 남은 자를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이전보다 훨씬 더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모세가 신 30:4-5 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진술했는지 들어보라. We have already seen from Leviticus 26 that the worst covenant curse was exile from the land. But in Leviticus 26:40-45, as well as Deuteronomy 4 and Deuteronomy 30, God promised that he would preserve a remnant, bring that remnant back to the land, and bless them even more than ever before. Listen to the way Moses put this matter in Deuteronomy 30:4-5:

Even if you have been banished to the most distant land under the heavens, from there the Lord your God will gather you and bring you back. He will bring you to the land that belonged to your fathers, and you will take possession of it.

He will make you more prosperous and numerous than your fathers (Deuteronomy 30:4-5).

(신 30:4-5 개역개정)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남은 자의 회복이라는 이 주제는 선지서들 전반에 걸쳐서 나온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는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남은 자에게 커다란 자연적 복을 주실 것임을 가르쳤다. 렘 23:3 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말씀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This theme of remnant restoration appears throughout the prophets. For example, Jeremiah taught that after the exile God would give great natural blessings to his remnant. In Jeremiah 23:3, Jeremiah reported these words from God:

I myself will gather the remnant of my flock out of all the countries where I have driven them and I will bring them to their pastures where they will be fruitful and increase in number (Jeremiah 23:3).

(렘 23:3 개역개정) 내가 내 양 떼의 남은 것을 그 몰려 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이와 매우 흡사하게 포로기 후에 남은 자는 또한 전쟁을 통한 큰 복도 받을 것이다. 선지자 요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올 때 이 남은 자가 큰 승리와 지속적인 평화를 경험할 것이라고 가르쳤다. 올 3:9 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In much the same way, after exile, the remnant

would also receive a great blessing in warfare. The prophet Joel taught that when the people of God came back, this remnant would experience a great victory and enduring peace. In Joel 3:9, we read these words:

Proclaim this among the nations: Prepare for war! Rouse the warriors! Let all the fighting men draw near and attack (Joel 3:9).

(을 3:9 개역개정)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아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그러나 그 후에 나오는 을 3:17 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승리에 관하여 읽는다. But then in 3:17, we read of Israel's victory:

Then you will know that I, the Lord your God, dwell in Zion, my holy hill. Jerusalem will be holy; never again will foreigners invade her (Joel 3:17).

(을 3:17 개역개정)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참고: 새번역: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도성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요엘은 이스라엘을 영원히 안전하게 세울 전쟁에서의 큰 승리에 대하여 말했다. Joel spoke of a great victory in battle that would establish Israel as safe forever.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남은 자의 회복을 바라보았다. 하나님은 가장 큰 형벌인 국외 추방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가 가장 큰 복인

회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All Old Testament prophets looked forward to the restoration of the remnant of God's people. God promised that despite the greatest punishment of exile, the remnant would receive the greatest blessing of restoration.

V. 결론(CONCLUSION)

이번 강의를 통해 우리는 선지자들이 언약들의 역학적 원리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탐구하며 세 가지 주요 주제를 살펴보았다. 첫째로, 우리는 언약의 이상들 곧 하나님의 은택과 인간의 책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둘째로, 우리는 선지자들이 개인적 수준으로부터 마지막에 국외 추방이라는 대심판에 이르게 되는 심판에 대하여 어떻게 경고했는지 살펴보았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작은 규모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남은 자를 통하여 포로기 이후에 대회복을 가져오실 것도 살펴보았다. 이 주제들 곧 이 역학적 원리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에서 그들을 인도했다. 그러므로 이 주제들은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들을 연구할 때 우리 또한 인도해야 한다. In this lesson we've explored how the prophets understood the dynamics of covenants and we've seen three main topics: First, the ideals of divine benevolence and human responsibility. And then we've also seen how the prophets warned of judgment from an individual level all the way to the grand judgment of national exile. And then finally, we've also seen that God would redeem his people both in small ways and then through a remnant, bring a grand restoration after the exile. These themes, these dynamics guided the Old Testament prophets in all they said, and these themes must also guide us as we study the Old Testament prophets.